



제 27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 열려

- 은탑산업훈장에 포스코 허남석 전무, 케너텍 정복임 대표이사 수상영예

■ 고경석 기자(kks@energycenter.co.kr)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시키고 에너지관련 업무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작된 에너지절약촉진대회가 올해로 27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포스코의 사례발표, 대전 샘머리초등학교 합창단의 합창 등 행사와 함께 에너지관련 유공자 147명에 대한 포상이 주어졌다.

지난 11월 10일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하는 제 27회 에너지절약축진대회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열렸다. 금번 축진대회에는 이희범 산자부장관을 비롯한 김균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최익수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 주요인사와 에너지절약 유공자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또한 에너지절약유공자 147명에게 포상이 주어졌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강화, 석유비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공급 측면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에너지절약에 있어서는 여러분 한분 한분이 산자부 장관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과 가정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관리공단 김균섭 이사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국가 전체로 481만toe를 절약, 약 1조 440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겨울철 내복입기 운동, 에너지절약 캐쉬백행사,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운동과 같은 국민참여 홍보활동을 통해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의식 고취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금탑산업훈장이 나오지 않은 이번 축진대회에서 포스코의 허남식 전무와 케너텍의 정복임 이사가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을 받게 되었다. 허 전무는 건식소화설비(CDQ) 및 배열보일러 설치 등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추진과 에너지절약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관리체계 개편으로 1,229toe(2,714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케너텍의 정 이사는 매년 매출액의 5~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 상용화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산업체와 공동주택에 확대 보급하여 연소사업 부문에서 1,170억원, 소규모 열병합 발전사업 부문에서 115억원의 에너지절감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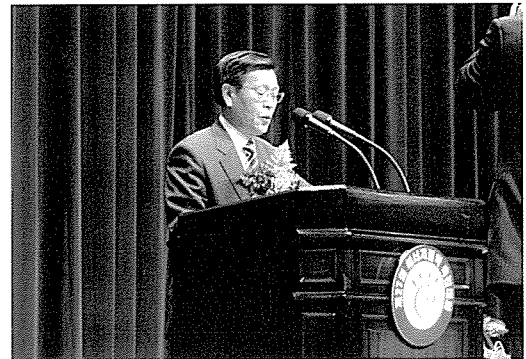
이날 이인영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한국스파이렉스사코(주) 박인순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 대림원인보이라 차금주 대표이사와 에코에너지(주) 배종호 대표이사가 석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주)대열보일러 신춘식 회장, 한국가스공사 정재현 전무이사, 미디어컴조향임 대표, (주)롯데월드 강병호 자문, (주)케이티 송상헌 자산개발단장이 산업포장을, 한화석유화학(주) 울산공장(김대식), 인천국제공항공사(이재희)가 대통령 단체표창, 보일러공업협동조합 등 30명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에너지관리자를 비롯한 117명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산업체 등 에너지사용 현장에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절약에 앞장선 에너지관리자부터 각종 제도정비, 교육, 캠페인 활동 등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 교사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에너지절약에 앞장선 주부 등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절약 실천 유공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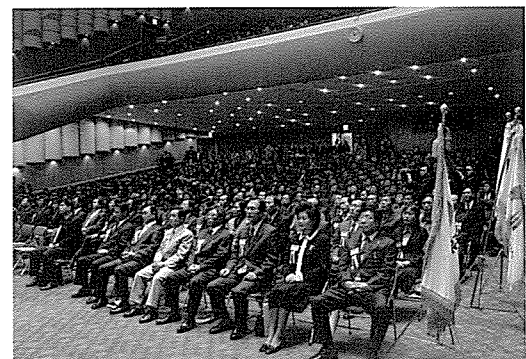
▶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개개인의 에너지절약을 강조했다.



▶ 에너지관리공단 김균섭 이사장이 에너지절약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 학생에너지절약 경진대회 합창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전 샘머리초등학교 합창단



▶ 수상자들의 모습